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 서울시 실태조사[●] 중심으로*

Disintegr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family/kinship structure
among the families in the Seoul area*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옥선화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주희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박혜인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신화용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한경혜
시간강사 고선주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Ok, Sun Wha.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
Professor : Kim, Joo Hee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
Professor : Park, Hye In

Dept. of Human Development & Family Studies, Duksung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 Shin, Hwa Yo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Associate professor : Han, Gyoung- Hae.
Lecturer : Koh, Seon Ju.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결론

참고문헌

* 본 연구는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Abstract>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disintegra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family/kinship structure in the rapidly industrializing urban area, Seoul. For this purpose, detailed data about (1) the value related to the family and kinship (2) the family relationship, especially marital relationship (3) the attitude of divorce and remarriage (4)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network (5) the family/kin rites and attitude about the rites are gathered. A total of 716 subjects comple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st of the respondents are found not to support familism and boy preference, and they show an ambivalence about the child value analyzed by concepts of the cost and reward.

Secondly,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 that marital relationship has been changed toward the direction of increased relative importance of wives' opin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ithin the family. However, they believe that husbands still have more power than their wives. Respondents also believe that parents have more power than their children.

Thirdly, most of the respondents view divorce as an alternative to unhappy marriage. It was also shown that relatively few have negative attitude toward remarriage.

Fourthly, the social network of the respondents is characterized by two distinct trends, namely, strong parent-child ties and narrowed kin relationship.

Fifthly, the urbaniz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western life style have disrupted the traditional rites of passage. But ancestral rites serve to confirm family ties, especially the gathering of siblings to perform ancestral rites for parents. Therefore foreign element exist in parallel with pre-existing traditional elements.

I. 서론

한국 사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는 생산양식의 변화에서 비롯되어 사회의 조직원리를 변화시켰으며, 전 사회에 걸쳐서 총체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가정(옥션화, 1996)이며 가족구성원의 삶의 양식의 변화는 가족과 친족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는 결국 가족 및 친족 구조에 영향을 주어 과거의 가족 및 친족 구조는 해체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족 및 친족 구조가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다. 농경사회였던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가족 및 친족 단위가 한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회조직보다도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일

제시대, 광복, 6·25 전쟁 등 사회적 혼란기를 겪으면서 시작된 산업화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친족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공적인 생산영역인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에서도 사회운영의 기반을 시구의 합리주의 가치관에 두면서 생산력의 증대를 최우선의 과제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많은 가족원을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하락되지 않았던 1960년대의 대다수 가족들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가족계획시책을 받아

1) 1951년에는 총인구의 1/5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제3차 산업에 고용된 인구가 50%를 상회하였으며(심윤중, 유홍준, 박승희, 1995, 140), 이러한 고용구조에 따라 인구의 도시화 추세가 급증하게 되었다. 즉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농촌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은 -2%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으며, 농촌에서 이주한 인구의 대다수는 수도권으로 유입되어 1990년에는 총인구의 거의 반수에 해당되는 42.8%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화 추세도 74.4%로 나타났다(권태환 외 13인, 1996, 15).

들었다. 그 결과, 평균 가구원수는 1955년의 5.5명에서 1980년에는 4.6명, 1995년에는 3.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세대별 가족유형에 영향을 미쳐서, 2세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 여성 가구주도 1960년에는 2.5%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21.0%로 불과 30년 사이에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혼인을 필수적이거나 보다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혼자서도 살 수 있게끔 달라진 생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권태환, 김두섭, 1994, 271-272),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 및 직업능력이 향상되면서 여성의 희생만을 요구하였던 전통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옥선화, 1996, 9-10).

한편 혼인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만혼현상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 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육기간이 연장되면서 남성보다 혼인연령 상승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 남녀간 혼인연령의 차이도 3세 정도로 줄어드는 등(옥선화, 1996, 7) 혼인과 관련된 남녀 차별적 상황 즉 혼인 연령의 차이로 인한 부부간 상하관계 심화라든가 남녀간 교육수준의 차이 등이 변화하여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한편, 가족 및 친족의 해체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여겨지는 이혼의 증가추이를 조이혼율의 변화로서 살펴보면, 1980년의 0.6에서 1995년에는 1.2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혼 전의 결혼지속년수도 길어져서 결혼기간이 15년 이상된 부부의 이혼이 1985년에는 7.4%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에는 14.0%로 증가하여(한국여성개발원, 1997), 결혼해체의 문제가 결혼초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가족생활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혼인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재혼에 대한 인식에도 반영되어 재혼은 이혼 당사자와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선택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임춘희, 1994). 실제로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를 보자면, 배우자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재혼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경우는 1970년의 8.5%에서 1995년의 10.3%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남자 초혼과 여자 재혼의 경우가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몇십 년간 이루어진 가족학 분야의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와 재구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표집의 제한성, 가족변화에 대한 통합적 시각의 부족 등으로 한국가족 전반에 걸쳐 나타난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이혼과 재혼중심의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결혼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사회변화지표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혼해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가족/친족의 해체와 재구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지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족 및 친족 구조를 파악하여 현대 한국인의 삶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과 친족 구조를 전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대 한국 가족 및 친족 구조의 재구성 현상을 파악하여 현대 한국가족과 친족의 변화된 측면을 제시하고 미래 가족을 예측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사회적 변화가 개인의 가치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관련 가치의 변화를 밝히고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 이혼과 재혼, 그리고 가족해체에 대한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결혼관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가족과 친족관계의 특성을 가족의 사회관계망과 의례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접근함으로써 가족과 친족의 기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

며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양상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즉, 전반적인 사회변화는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빨리 나타나며 가족과 친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도의 차이는 가치관이나 태도뿐 아니라 가족의례나 관계망 등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친족의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함으로써 가족과 친족의 변화의 실제에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 연구를 위한 첫단계로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인 서울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지역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현대 서울시민의 가족/친족의 해체와 재구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다음의 다섯 주제를 통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 가족관계 인식, 이혼과 재혼관, 사회적 관계망, 가족/친족생활의례의 다섯 주제이다. 이러한 주제별로 전체 응답자들의 경향이 어떠한가를 봄으로써 현재 도시에서 가족/친족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다섯 주제들이 각기 성과 연령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주제에 대한 태도가 성과 연령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변화과정을 거치는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성과 연령에 따라 변화양상은 가족/친족 구조에 차이를 나타낼 것이고 이러한 차이는 궁극적으로 가족/친족의 해체와 재구성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 연령별 차이 분석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는 어떠한가?

- 1-1. 가족주의가치, 자녀관, 남아선호사상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1-2. 가족주의가치, 자녀관, 남아선호사상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1.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2.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이혼과 재혼에 관한 태도는 어떠한가?

- 3-1. 이혼과 재혼에 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3-2. 이혼과 재혼에 관한 태도는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어떠한가?

- 4-1. 사회적 관계망 특성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4-2. 사회적 관계망 특성은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가족/친족생활의례와 의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 5-1. 가족/친족생활의례와 의례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5-2. 가족/친족생활의례와 의례에 대한 태도는 성과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의 인구를 대상으로 가족 및 친족의 해체와 재구성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1996년에 발행한 제36회 「서울통계연보」를 토대로 비례적 층화추출을 통하여 성(性), 연령, 지역,

교육수준, 결혼지위를 고려한 720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각 연령을 인구구성비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수를 결정하였다. 즉 10대 79명, 20대 209명, 30대 180명, 40대 130명, 50대 86명, 60대 36명으로 할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연령대를 성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결혼지위별로 분배하여 표본을 설정하였다. 대상지역 선정은 서울시를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눈 뒤, 다시 각 지역을 동서로 구분하여, 북동(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북서(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남동(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남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지역별 인구비(33%, 18%, 20%, 29%)에 따라서 각 연령대의 조사대상을 남녀 동수가 되도록 표집하였다. 교육수준은 각 연령대별 교육수준의 비율에 따라서 표집하였다³⁾. 결혼지위의 경우 10대, 20대, 60대를 제외하고는 기혼자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동일연령대의 미혼, 기혼과 사별을 비율에 따라 표집한 결과 10대는 전원 미혼이고, 20대의 경우 기혼자가 43%이고, 30대, 40대, 50대는 대체로 기혼자였으며, 60대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40%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전반적인 문항내용을 검토하고 문항의 양호도를 살피기 위하여 199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남녀 각 1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한 후에 1997년 12월 20일부터 1월 1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면접조사훈련을 받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35명의 조사원이 할당추출 방법에 의해 선정된 지역에 찾아가 대상자에 맞는 조건을 지닌 응답자를 선정하여 면접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차 본조사 자료 수집 결과 표집계획과 비교하여 표본수가 표본설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추가조사를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최종 자료 수집 결과 총 716명의 질문지를 회수하여 전

표본수는 계획대비 99%를 확보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측정도구의 구성은 가족과 친족관련 가치관의 경우에는 척도를 구성하여 이용하였으나 가족관계의 실태와 이혼 및 재혼관, 친족관계망 특성, 가족 및 친족의례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와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성과 연령별 비교를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단일문항 분석을 하였다.

가족관계의 경우 가족관계의 상대적 위상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관계를 질문하였으며 지난 10년간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서 권력의 소재 및 부부의 역할수행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혼 및 재혼에 관한 태도는 일반적인 이혼에 관한 허용도, 특정상황에 따르는 이혼 허용도와 재혼에 관한 문제나 인식, 목적등에 관한 다양한 문항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친족관계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구성, 접촉빈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가족 및 친족생활의례는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의례 실태와 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복수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는 가족주의가치, 자녀관, 남아선호사상이다.

1) 가족주의가치 척도

가족주의가치 척도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살펴본 선행연구들(박인덕, 1979; 옥선화, 1975; 유영주, 1976; 최재석, 1996; 홍승직, 1971)을 참고로하여 옥선화(1989)가 작성한 가족주의가치 척도를 사용하였

2) 1996년에 출판된 제36회 「서울통계연보」는 1995년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인구분포를 집계한 것이나 혼인상태별 인구는 1990년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 1990년 분포에 따라서 표집을 하였음.

3) 전문대 졸업자는 각 연령대에서 해당되는 인구의 비율이 매우 낮아 대졸자에 포함시켰음.

다. 이 척도는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화, 부모 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총 21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단히 반대하는 경우 1점부터 대단히 찬성하는 경우 5점을 주어, 전체 문항의 총점은 21점부터 105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가 낮은 것이다.

2) 자녀관 척도

자녀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보상과 비용의 측면에서 샐퍼본 연구(Fawcett, Albores & Arnold, 1972)에서 사용한 척도를 토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보상 및 비용이라는 2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상에는 존재적 보상, 정서적 보상, 부모 개인의 성숙에 미치는 보상, 결혼의 의미에 미치는 보상 등 6문항, 비용에는 신체적 비용, 행동제약의 비용, 부부관계에 미치는 비용, 경제적 비용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모두 12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1점부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5점을 주어, 전체 문항 중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보상과 비용의 총점은 각각 5점에서부터 25점이 되며, 각각의 점수가 높을수록 보상 또는 비용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은 것이다.

3) 남아선호사상 척도

남아선호사상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부계 계승의 측면에서 남자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를 가족학을 전공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6인이 논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때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일반상식 수준에서 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합의하여 '딸'의 경우로 대치하여 질문하였다. 즉 '딸이 들인 경우에도 자녀를 낳아야 한다', '딸만 있으면 뭔가 허전하다', '딸이 들 있는 경우 남들에게 말하기가 싫다', '딸보다 아들이 잘되어야 그 집안이 잘된다', '딸은

시집가면 그뿐이다' 등 총 5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1점부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5점을 주어, 전체 문항의 총점은 5점부터 25점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남아선호사상이 약한 것이다.

4) 신뢰도와 타당도

이상에서 제시된 모든 척도와 단일문항들은 가족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6인의 공동연구원들의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안면 타당도를 검증한 후 구성하였다. 우선 척도의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주제를 선정 한 후 각 주제에 맞는 척도를 구성, 혹은 선정하였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조사대상자와 같은 조건을 가진 대상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척도는 다음의 <표2-1>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나 인식, 실행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의 경우 또한 공동연구원들의 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적합도를 평가한 후 문항을 선정, 수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최종문항을 선택하였다.

<표2-1> 척도의 신뢰도

척도	신뢰도(Cronbach' α)
가족주의가치	.86
보상적 자녀관	.78
비용적 자녀관	.68
남아선호사상	.80

4. 조사 대상지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이 된 716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문항을 응답한 714명중 10대는 10.9%, 20대가 28.3%, 30대가 26.3%, 40대가 17.5%, 50대가

12.0%, 60대가 4.9%로 이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접근하도록 표본추출한 결과이다. 이중 남성이 51.5%이며 여성이 48.5%이다. 10대를 제외한 636명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보면 초졸 이하가 7.5%, 중졸이하가 9.5%, 그리고 고졸 이상이 44.4%,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가 36.9%이었다. 응답자 가족의 소득 수준을 보면, 150만원 이하가 11.2%, 150만원에서 250만원 미만인 37.6%, 250만원에서 350만원 미만인 32.0%, 그리고 350만원에서 500만원 미만인 11.1%이고, 500만원 이상은 8.9%이었다. 전체 평균은 약 206만원이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미혼이 30.7%이며, 초혼인 경우가 66.2%, 재혼인 경우가 0.6%,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한 이가 2.5%이었다. 이 연구의 경우에 60대를 제외하고는 기혼인 경우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이혼이나 별거한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응답자들의 종교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많아 37.2%이며, 천주교가 11.7%, 불교가 21.1%, 그리고 무종교가 27.8%이었다. 조사 설문지의 선택지에는 천도교가 있었으나 응답자는 없었다.

자신의 성장배경이 도시인 경우는 62.8%이고 농촌인 경우는 37.1%이었다. 응답자들의 가족형태를 보면 80%이상이 핵가족이었으며 부계확대가족의 경우가 13.9%, 그리고 모계확대가족인 경우가 4.0%이었다.

직업형태를 보면, 사무직이 가장 많은 24.7%, 자영업이 14.3%, 전문기술직이나 경영관리직이 7.0%, 생산·기능·서비스직이 3.9%이다. 그리고 주부가 21.8%, 10대를 포함한 학생이 17.6%이며 은퇴나 무직의 경우가 5.0%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거형태를 보면, 고층과 저층을 포함하는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34.6%이었으며, 연립이나 빌라에 거주한다는 경우가 28.2%, 단독주택이 16.7%, 그리고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16.8%, 임대주택이 3.5% 순이다. 이중에서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68.3%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 표집의 특성은 대체로 서울시민과 성과 연령분포가 유사하며, 사무직과 자영업 중

심의 스스로 도시인이라고 생각하는 핵가족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소득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10대 응답자의 경우 부모의 소득을 질문함으로써 대체로 소득수준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층의 비율이 다소 높아진 결과때문이라고 보인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 및 해석은 각 연구문제별로 전반적인 경향과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소결을 제시하였다⁴⁾.

1.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

가치관은 사람들의 태도 및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념체계로서, 삶의 형태가 다양화되며, 개인의 선택범위가 확대되는 시점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삶의 변화와 연속된 모습을 예측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원주의적 속성이 더 강해지는 21세기에는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하는 개인의 가치관이 더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회적 변화는 가정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옥선화, 1996, 1). 그러므로 가족 및 친족관련 영역에서 보이는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통해서 가족 및 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1) 가족주의가치

가족주의가치는 조선시대 이래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반영하는 가치관이다. 이를 통하여 가족우선성, 부계가문의 영속성, 부모공경의식, 형제자매 및 친척간 사회경제적 유대의식 등의 규범을 어느

4) 이 연구는 가족/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방대한 관련주제와 변수를 포함하여 수행되었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면상의 이유로 각각의 표는 제시하지 않고 본문중에 요약해서 설명하였다. 이에 관하여 문헌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자에게 연락바람.

정도로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응답자들은 가족주의가치에 대하여 지지하는 정도가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척도의 범위:21점-105점: 평균값: 56.6점). 이러한 결과는 10년 전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남녀를 조사한 연구(옥선화, 1989)에서 보인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정도가 약간 찬성에 가까운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더 근대적인 가치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족주의가치에 대해서 장현섭(1993)은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가족주의 원리는 전통사회의 장자위주 의식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여전히 가족주의 원리 자체는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10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가족주의 가치 지지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으므로, 현대인에게 가족주의가치 자체는 낮은 지지수준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성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주의가치의 내면화 정도가 낮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치지향성에서 진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20대 여성이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평균값: 48.9점).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족주의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있으며, 성과 연령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자녀에 대한 가치관

이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보상적 자녀관과 비용적 자녀관으로 나누어 보았다. 보상적 자녀관이란 자녀는 결혼생활에 의미를 제공하며, 삶의 기쁨과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며, 비용적 자녀관이란 자녀는 부부관계 및 가정생활에 부담을 주는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응답자는 자녀를 인생과 결혼생활에 보상을 주는 존재로 생각(척도의 범위: 6점-30점: 평균값: 22.4점)하는 동시에 실제 생활면에서는 부담을 주며, 생활의 리듬을 깨는 비용적 존재로 생각(척도의 범

위: 6점-30점: 평균값: 21.4점)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성(性)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보상적 자녀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가 결혼생활 및 전체 삶에 의미를 제공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아지며, 60대는 자녀를 결혼생활 및 전체 삶에 좀 더 보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제 성장기의 자녀를 키우면서 부담을 갖고 있는 20대 응답자는 결혼생활 및 자신의 삶에서 자녀를 비교적 덜 보상적인 존재로 생각(평균값: 21.0점)하며, 자녀가 성장하여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며, 과거 경험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기억한다고 보이는 60대 응답자는 자녀를 보상적인 존재로 생각(평균값: 25.4점)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용적 자녀관은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미성년인 10대 응답자를 제외하고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자녀를 결혼생활 및 자신의 삶에 비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특히 현재 성장기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20대 여성은 자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평균값: 22.8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성(性)과 연령대에 해당하는 60대 남성이 자녀를 가장 덜 비용적인 존재로 생각(평균값: 19.2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 자체에 대한 가치관은 물론 현재의 자녀양육책임과 역할수행상태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3) 남아선호사상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를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아보다는 남아를 두드러지게 선호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가족의 두드러진 변화는 소인수의 자녀를 갖는 경향이며, 교육이나 고용 등의 분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남녀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변화가 과연 개인의 남아선호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응답자들의 남아선호사상은 별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딸만 둘있는 경우 아들을 낳아야 한다던가, 딸만 둘인 경우를 창피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딸은 출가외인이며, 아들이 잘되어야지 그 집안이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척도의 범위:4점-20점: 평균값: 8.6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644명을 대상으로 남아선호사상을 조사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2)와도 일치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반드시 아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자 30%, 남자 33.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남아선호사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응답자는 보통 이상의 남아선호사상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60대 여성이 가장 높은 남아선호사상을 보였다(평균값: 12.8점). 반면, 최근의 양성평등적인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는 10대 여고생이 가장 낮은 남아선호사상(평균값: 6.1점)을 나타냈다.

4) 소 결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의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접근한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정도는 과거 10년전과 비교할 때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전반적인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지지정도는 상당히 낮은 편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지지정도가 낮다. 특히 60대 응답자를 제외한 다른 응답자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인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지지정도가 보통수준 이하이므로, 앞으로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은 점차로 소멸하고, 보다 진보적 가족가치관으로 가족 및 친족관계가 재구성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20대 여성 응답자들이 가장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현재 가장 보수적인 가치관을 보이는 60대 응답자들과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20대 여성은 가족 내에서

시부모-며느리라는 관계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그리고 전반적인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남아선호사상을 통하여 자녀와 관련된 가치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거의 가(家)의식과 남성 중심 가치 구조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60대 이상의 남녀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가치를 지지하는 경향이지만 50대부터 2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성향은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 조사의 결과가 개인의 행동 특성에 어느 정도 반영될 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근 총인구조조사결과에서 볼 수 있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남아출산율과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무한한 투자 현상은 가치관 조사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녀에 대한 보상적 혹은 가문 중심적 가치와 남아선호사상은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소수인 자녀에 대한 과잉기대와 잔존하고 있는 개별 가족의 남아선호현상이 또 하나의 가치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전반적인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은 성(性)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는 연령이 낮은 집단이 보다 근대적인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족은 성(性)과 연령에 따라서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분리된 체계의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IMF 관리체제로 인해 가치관이 일시적으로 보수화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은 보다 근대적, 탈근대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행동이 가치관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가족내 각 영역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부계직계가족을 이상형으로 택하였던 우리의 전통가족은 부자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르는 핵가족화로 인해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들(박미령, 1987; 최규연, 1988)은 결혼의 질 혹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진제하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자녀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보여주며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대적 위상, 10년전과 비교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정도 및 변화된 영역을 살펴보았다.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실태와 변화의 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들의 상대적인 위상 및 각 관계별로 변화정도에 대한 지각과 구체적인 변화상, 권력, 역할의 실태를 알아보았으며 각 결과들을 성과 연령에 따라 분석하였다.

1)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상대적 위상

'가족관계 중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명중 9명의 응답자가 '부부관계'라고 응답하여 부모-자녀관계에 비해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들이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들은 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10대와 50, 60대가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로 부부관계를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부부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50, 60대와 유사한 보수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50, 60대의 자녀세대인 20, 30대는 이들과 다른 비전통성을 보여주고 있어 가족내의 세대차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부부관계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부부관계가 10년전과 비교한 때 상당히 변화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변화정도에 대한 지각은 성차보다는 연령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부관계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60대로서 상대적으로 부부관계의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10대, 20대 및 40대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와 부인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경험하였던 60대의 경우에 대중매체를 통해 관찰되는 부부관계가 과거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부부관계와 차이가 있음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60대는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젊은이들의 부부관계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부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부인의 영향력과 의견이 존중되는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부인의 부양자역할의 증가에 대한 인식은 남편의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증가에 대한 인식보다 낮았다. 30년간 한국부부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수행정도는 부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한 연구들(이기영 외, 1994; 이미숙, 1995)과 더불어 여성의 취업률 증가를 고려한다면 여성의 취업은 증가하였어도 부양자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낮으며 남편의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는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매체나 광고 불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적극적인 남편상이 일반인들에게 실제의 변화정도보다도 크게 지각되는 반면 기혼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에 따른 부양자 역할증가는 과소지각된 것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부부 공유시간과 대화시간의 증가가 있었다는 지적도 상당수 있어 제도적 부부관계에서 우애적 부부관계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간 권력관계에서는 남편의 권력이 크다는 인

식이 여전히 높다. 즉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의 권력이 부인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서 과거에 비해 부인의 영향력과 의견이 존중된다는 지적이 70%를 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부관계를 보면 과거에 비해 부인의 영향력과 의견은 존중되고 있으나 아직도 남편의 권력이 부인의 그것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권력에 대한 인식에서도 연령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대가 남편에게 권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편의 권한을 적게 인식하고 있는 30, 40, 50, 60대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가부장적 전통사회의 문화에 노출된 경험의 정도가 각 세대의 부부간 권력에 대한 기준설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대의 경우 대중매체나 여성운동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평등한 부부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으로도 생각되며 앞의 가족주의가치 연구에서 20대 여성이 가족주의가치를 지지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경우는 생계책임자와 집안의 통솔자로서의 역할이, 부인의 경우는 어머니역할과 주부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정적인 배우자로서의 역할은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경우 중요도가 낮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뒤에 제시될 '가족관계 중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과는 대비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부역할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도적 결혼의 특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인의 역할에 대한 견해에서는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부인의 부양자역할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의 취업육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혼여성들도 취업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성

들에게 보다 강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편과 부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는 연령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부양자 역할을 덜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아내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집안살림을 잘 하는 것이 아내역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대체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세대간 가족역할과 관련된 갈등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부록1 참조>

3) 부모자녀관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각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자녀세대의 사람들이 관계의 변화가 적었던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부모세대는 변화가 많았던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보다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지향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자신들과 부모와의 관계를 비교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년층은 현재의 부모-자녀관계를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부모자녀관계가 변화했다고 지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주게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주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소수에 그쳤다. 즉 지난 10년간에 일어난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는 자녀의 위상이 높아진 것에 있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부모자녀간에 보다 가까워지고 대화가 많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다수 존재하여 부모자녀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 권한은 부모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여전히 부모에게 더 많은 권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간 권력구조에 대한

지각에서는 성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족내의 종적질서가 여전히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인식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2 참조>

4) 소 결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현대의 도시인들은 우리나라의 부부관계가 지난 10년간 부인의 영향력과 의견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컸으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연령차이가 두드러져 60대가 변화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영향력과 의견이 과거에 비해 존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관계에 있어 권력은 남편에게 있다는 인식이 강하며 특히 20대는 남편의 권력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부부의 역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경우 생계책임자와 집안통솔자로서의 역할이, 부인의 경우 어머니 역할과 주부로서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어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보다 부인의 부양자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의 부양자 역할이나 부인의 가사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덜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여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로 부터의 변화가 예측된다.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10년전에 비해 부모가 자녀를 존중한다고 믿고 있으나 여전히 부모자녀관계에 있어 권력은 부모에게 있다는 인식이 높으며 이러한 인식에 있어서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통해 본 한국의 가족관계는 표면적으로 서구의 부부가족의 이념을 수용하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보다 평등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전통적인 부계가족의 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에 대한 저항과 보다 평등한 부부관계 및 민주적인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지향성 또한 관찰되고 있어 세대에 따른 가족역할에 대한 기대차이와 이에 따르는 가족갈등 그리고 앞으로의 가족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3. 이혼과 재혼에 관한 태도

이혼율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우리사회에서도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이 완화되면서 불행한 결혼에 대한 내안으로서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차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갭걸을 비롯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결과들도 대부분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들은 주로 20, 30대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유의추출로 일반화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한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도를 묻는 한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족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혼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어떻게 구체화되면서 이혼행동 및 이혼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다양한 배경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혼에 대하여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혼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 허용도와 함께 상황에 따른 이혼관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재혼에 대한 태도 역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구법의 변화, 그리고 이혼 및 재혼율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재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진부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혼에 있어서의 자녀문제, 재혼의 목적, 그리고 재혼에 대한 주변의 인식 등 다양한 문항을 통하여 재혼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태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이혼에 대한 허용도

이혼에 대한 허용도를 조사한 결과가 다음의 <표 3-1>에 나타나 있다.

먼저 '불행한 결혼을 참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진술에 대한 찬성정도로 이혼에 대한 전반적 허용도를 측정할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혼에 대하여 상당히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뒹뒹어지기 쉽다고 생각하며, 반수에 약간 못미치는 응답자가 자신의 자녀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질문이 구체화될수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반수가 약간 넘는 응답자들이 이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 해야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으며, 응답자의 약 47%가 좋은 부모라면 배우자가 문제가 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혼가족은 문제가족이고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시각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진술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한 결과에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혼에 대한 허용도는 증가하였으나 질문이 구체화 될수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등장하고 있고 특히 자녀와 연관해서 더욱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이혼에 대한 허용도에 있어 연령별, 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연령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20대가 가장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부정적 영향은 6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특히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전반적 허용도에 있어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서, 20대 여성이 이혼에 대하여 특히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상황에 따른 이혼관

다음은 이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여, 응답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선택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았다. 이혼의 직/간접적 원인인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10가지 상황을 가정한 후, 각각의 상황에서의 이혼의 허용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3-2>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들이 부부간 성격이나 가치관의 부조화, 인격과 감정의 무시, 애정의 결여 등의 심리적, 관계적 문제가 있는 결혼의 해체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정도의 허용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결혼이 부부간의 애정, 심리적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결합이어야 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때는 이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반면 신체적 결합으로 인하여 자녀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혼에

<표 3-1> 이혼에 관한 허용도(N)

N=716

문항	대단 반대	약간 반대	찬반 미정	약간 찬성	대단 찬성
1.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	03(2)	49(35)	148(106)	638(457)	159(114)
2.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	17(12)	109(78)	175(125)	511(360)	189(135)
3.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뒹뒹어지기 쉽다.	04(3)	80(57)	126(90)	469(336)	320(229)
4. 만약 이혼을 하려거든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에 해야한다.	67(48)	232(166)	195(139)	357(255)	148(106)
5. 부모가 이혼을 한 사람은 자신들도 이혼하기 쉽다.	78(56)	257(184)	253(181)	322(230)	90(94)
6. 내 아들/딸이 부모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반대하겠다.	69(49)	227(162)	250(179)	315(225)	140(100)
7. 좋은 부모라면, 배우자로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9(42)	242(173)	233(167)	365(261)	102(73)

대하여 약 13%의 응답자만이 동의한 반면, 나머지 응답자는 반대견해를 밝혀서 전통적으로 결혼에서 중시되어오던 자녀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변화된 관점을 볼 수 있다. 부부관계에 대한 강조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높은 허용도를 보이는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때, 아내의 외도가 이혼사유가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응답자들의 반응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성, 결혼과 관련된 이중규범이 뿌리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부부간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이혼에 동의한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보다 적어서, 결혼에 있어 부부관계를 중요시하는 태도가 부부간 성생활을 중요시하는 태도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배우자와 친족과의 관계 및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분제에 대해서는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이혼에 동의하여, 친족과의 관계가 아직은 결혼적응 및 가족관계에 영향력있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 한국가족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내'를 비덕으로 여기고 요구해오던 전통적 사고에서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위에서 살펴 본 여러가지 상황에서의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의 상황에 따른 이혼관에 있어 연령집단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많은 반면, 성별 의견차가 보이는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성격과 가치관의 부조화,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 불임, 애정없는 결혼, 배우자 외도 및 친족과의 학대문제가 있을 경우의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연령집단간 차이가 관찰되었다. 설문적으로 각 상황에서의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정도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20대가 가장 높은 허용성을 보였다. 단 부인이 외도를 한 경우의 이혼에 대해서는 20대와 60대가 가장 높은 허용성을 보이면서 10대, 30대, 40대, 50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대의 태도는 여성의 외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반영하는 결과인듯 하고, 20대의 경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신혼기에 속해있을 이들의 연령대가 부부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결과인듯 하다. 성생활 문제와 배우자의 과실로 인한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이혼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태도에 있어서 연

〈표 3-2〉 상황에 따른 이혼관

N=716

문항	대단 반대	약간 반대	찬반 미정	약간 찬성	대단 찬성
1. 부부간에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	6.1(46)	29.6(212)	39.8(252)	35.2(178)	3.7(27)
2. 배우자 때문에 가정에 경제적 파탄이 생긴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7.0(50)	25.1(180)	22.6(162)	35.5(254)	9.8(70)
3. 성격이나 가치관 등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2.7(19)	15.5(111)	20.8(149)	51.5(369)	9.5(68)
4.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무시하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1.8(13)	9.4(67)	13.8(99)	58.0(415)	17.0(122)
5. 어느 한쪽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을수 없는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18.3(131)	48.7(349)	19.6(140)	11.9(85)	1.4(10)
6.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이혼을 할 수 있다.	3.8(27)	16.6(119)	19.8(142)	43.2(309)	16.3(117)
7.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이혼할 수 있다.	3.5(25)	16.0(114)	22.1(158)	41.8(299)	16.3(117)
8. 부인이 바람을 피우면 이혼할 수 있다.	2.0(14)	9.2(66)	17.0(122)	48.9(350)	22.6(162)
9. 남편이나 부인이 시댁이나 친정식구를 괘시하거나 심한 학대를 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	2.2(16)	10.3(74)	23.6(169)	47.6(341)	16.2(116)
10. 시댁이나 처가에서 괘시나 심한 학대를 받는다면 이혼할 수 있다.	2.7(19)	12.7(91)	22.5(161)	44.8(321)	17.3(124)

령집단에 따르는 체계적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이 두 경우의 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타났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연령층이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석된다.

다양한 상황에 따르는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성차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배우자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 남편의 외도, 그리고 시댁이나 처가에서 심한 학대를 받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에 동의하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재혼에 대한 태도

재혼에 대한 태도를 정리한 <표 3-3>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녀가 있더라도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진술에 대하여 거의 70%에 달하는 응답자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결혼을 두 사람의 애정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고 하겠으며 이는 위에서 이혼에 대한 태도분석에서 관찰된 경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다음으로 많은 수의 응답자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필요하므로 남자가 혼자된 경우 재혼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과반수가 넘

는 응답자가 이에 동의한 반면, 여성이 같은 이유로 재혼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는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다. 재혼에 대한 이중규범과 함께, 자녀양육에 어머니가 꼭 필요하다는 일반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자녀 때문에 재혼하면 안된다는 인식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도 남/녀에 대한 동의도에 차이가 있어서 이중규범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

재혼에 대한 가장 일반적 형태의 사회적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재혼가족은 다시 깨어지기 쉽다”는 진술에 응답자의 1/5만이 동의하고, 30%에 못 미치는 응답자가 재혼가족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재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별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재혼에 대한 이러한 태도에 있어 성별,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혼에 대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남녀간의 차이는 별로 관찰되지 않은 반면,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상당정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여자가 혼자된 경우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므로 재혼해야 한다는 항목에서 관찰되었는데, 남 자 응답자들의 동의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상황에 따른 재혼태도

N=716

문 항	대단 반대	약간 반대	찬반 미정	약간 찬성	대단 찬성
1.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자녀와 상관없이 재혼	0.1(9)	8.9(64)	21.2(152)	39.9(55.7)	12.7(91)
2. 자녀들이 어머니가 필요하므로 재혼	2.5(18)	20.3(145)	25.8(185)	44.6(319)	6.7(48)
3. 자녀들이 아버지가 필요하므로 재혼	4.7(34)	30.6(219)	31.6(226)	29.5(211)	3.4(24)
4.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혼	4.2(30)	25.1(180)	30.9(221)	37.0(265)	2.7(19)
5. 성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혼	7.1(50)	29.2(209)	33.5(240)	28.4(203)	1.8(13)
6. 혼자된 남자의 경우 자녀생각하면 재혼하지 말아야	11.7(84)	55.6(398)	20.0(143)	9.4(67)	3.1(22)
7. 혼자된 여자의 경우 자녀 생각하면 재혼하지 말아야	11.0(79)	53.5(383)	18.7(134)	12.4(89)	4.1(29)
8. 자녀가 다 성장한 이후 재혼	7.5(54)	37.3(267)	27.5(197)	21.6(155)	5.9(42)
9. 재혼하면 주위사람들의 남다른 시선	4.5(32)	21.4(153)	24.0(172)	45.7(327)	4.3(31)
10. 재혼가족 자녀들은 문제없음	5.9(40)	31.6(226)	37.4(268)	26.3(188)	3.1(22)
11. 재혼가족은 깨지기 쉽다.	9.9(71)	41.0(293)	28.9(207)	17.3(124)	2.7(19)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발견된 연령차는 주로 60대와 그 외의 연령층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를 구해주기 위한 재혼,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재혼에 대한 허용정도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서 60대 층이 가장 높은 허용도를 보였다.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어머니의 중요성, 결혼의 도구적 성격에 대한 노인들의 보수적 시각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보수성은 자녀를 생각한다면 재혼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생각 및 재혼가족 아이들의문제 가능성, 재혼가족의 불안정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60대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편, 20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자녀가 있어도 재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점에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여서, 개인중심의 애정을 중시하는 이들 세대의 가치관을 나타내주었다.

4) 소 결

이혼에 대한 태도를 전반적 허용도와 다양한 상황에 따른 이혼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시민들은 이혼이 선택가능한 대안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질문을 구체화하였을 때,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상당히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혼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에 있어 남녀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연령집단간 차이는 나타났는데, 6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이혼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 결혼관 및 가족관을 가지는 연령층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응답자들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의 이혼에 매우 허용적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경향에 있어 연령차, 성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남, 녀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의 응답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공유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상황에 있어서의 이혼에 대하여 젊은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사회의 변화방향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부부간

의 인격과 감정 무시, 남편의 외도, 그리고 친족의 학대경우의 이혼에 대하여 남/녀의 입장 차이가 부각되는 결과는 결혼생활과 가족해체의 가능성에 있어서의 남녀간장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재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낮았고, 애정을 기초로 하는 재혼에 대하여 매우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혼에 대하여 비교적 허용적 태도를 보였다. 가족의 불안정성이나 재혼가족의 자녀를 분제시하는 등의 재혼에 대한 편견정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재혼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는 경향이 관찰되어, 우리 사회에 아직 성, 가족관련 이중규범이 존재함을 볼 수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과 재혼이 남, 녀에게 다른 비중의 스트레스를 주는 인생사건(life events)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연령차는 주로 6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더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간의 태도 차이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4.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사회적 관계망 특성을 살피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도를 우선적으로 분석한 뒤 가장 가깝다고 지정한 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성과 연령에

5) 관계망 특성의 분석을 위해서 기혼자 380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의 범주는 조사대상자들이 제시한 사회적 관계망의 내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통합 분류하였다. 친족은 양가부모(친부, 친모, 시부, 시모, 장인, 장모),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기혼아들, 기혼딸,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여자형제, 남자형제, 형제자매의 배우자, 유희) 인척(인척, 시누이, 동서, 처남, 매형, 시동생이나 시아주머니, 처형이나 처제), 기타 친족(부계쪽 삼촌, 모계쪽 삼촌, 양가사촌, 양가 5촌 이상 등)으로 통합 분류되었다. 비친족은 학연(학교 친구, 학교 선후배, 농장, 동향친구) 이웃(동네 친구, 이웃), 친지(그냥 친구, 그냥 아는 형동생), 공직 관계(직장동료, 직장 선후배, 종교계통), 기타(이성친구, 이성선후배, 기타)로 통합 분류되었다.

따라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접촉빈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다.

1) 사회적 관계의 중요도

응답자들이 첫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양가부모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학연, 친지, 인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족 대 비친족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68.7% 대 31.3%로 친족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응답자 373명이 두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양가부모, 학연, 친지, 인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족 대 비친족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57.1% 대 42.9%로 여전히 친족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응답자 360명이 세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연, 친지, 양가부모, 이웃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족 대 비친족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48.6% 대 51.4%로 비친족의 비율이 더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응답자 326명이 네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연,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이웃, 공적 관계 및 양가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족 대 비친족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34.7% 대 65.3%로 비친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응답자 291명이 다섯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학연, 이웃, 공적 관계, 형제자매와 배우자 및 인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친족 대 비친족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29.6% 대 70.4%로 비친족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다음 세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네 번째(380명 중 54명), 혹은 다섯 번째(380명 중 89명)로 가까운 사람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도시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내외의 몇몇 선행 연구들(오승환 1990: 52, Marsden, 1987: 124, Moore, 1990, 728, O'Connor, 1990, 297-298)에서 개인에게 친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수는 3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둘째, 도시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아직도 친족이지만 비친족과의 관계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세 번째로 가까운 사람부터는 비친족의 비율이 친족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친족과 비친족의 비율이 거의 동등한 수치(49.0% 대 51.0%)이다. 셋째, 도시인이 유지하고 있는 친족관계의 범위가 매우 좁아, 양가부모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근친에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동원(1984: 14)은 오늘날 도시인의 친족 관계는 부모, 형제, 형제의 배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광자(1988: 44-46)에 의하면 기혼남녀가 부모형제와 왕래한다는 비율은 대략 80% 이상이나 삼촌 이상의 친척과 왕래한다는 비율은 30-40%정도로 뚝 떨어진다고 하였다.

2)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

평소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다고 대답한 이름 1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성과 연령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에서의 차이를 보았다. 20대 남성의 경우, 양가부모가 삼분의 일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세 번째로는 기타 친척, 학연, 기타가 각각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양가부모가 삼분의 이 가량의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학연이고, 나머지 관계망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친족 대 비친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은 68.8% 대 31.2%이고, 여성은 84.8% 대 15.2%로서 남녀 모두 친족의 비율이 매우 높다.

30대 남성의 경우, 양가부모가 절반 정도였고, 그 다음이 학연이며, 친지, 기타친척,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 여성의 경우는, 양가부모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각각 삼분의 일

6) 응답자 373명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섯명까지 기록하게 요구하였으나 다섯명까지 관계망이 있는 경우는 291명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으로 갈수록 기록하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가량씩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친지, 학연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족 대 비친족 비율을 보면, 남성은 70.2% 대 29.8%이고, 여성은 77.3% 대 22.7%로서 친족의 비율이 여전히 매우 높다.

40대 남성에게 있어서는, 양가부모가 삼분의 일 정도로 가장 많았고 두번째로는 학연이 오분의 일 가량으로 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였고, 나머지 관계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40대 여성 역시 양가부모가 삼분의 일 정도였고, 두 번째로는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오분의 일 가량이었었다. 그 다음으로는 친지, 이웃, 학연이었으며, 나머지 관계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친족 대 비친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은 58.0% 대 42.0%이고, 여성은 67.3% 대 32.7%로, 20대, 30대와 비교하여 친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0대 이상 남성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약 삼분의 일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친지, 양가부모, 학연,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의 순으로 높으며, 나머지 관계망들의 비율은 매우 낮다. 50대 이상 여성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이웃이 각각 오분의 일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양가부모와 인척도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와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보다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족 대 비친족의 비율을 보면, 남성은 61.0% 대 39.0%이고, 여성은 61.3% 대 38.7%로서, 친족의 비율이 2, 30대에 비하여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분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이 모든 연령층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국내외의 몇몇 선행연구(오승환, 1990, 76; Fischer, 1988, 129; Moore, 1990, 733)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여성의

관계망은 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남성의 관계망은 이웃을 제외하고는 비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친족과의 관계는 줄어들고 비친족과의 관계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인간 관계가 다양해지고 부모 또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비친족이 배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선행연구(강성희, 1996)에서도 연령과 가족생활주기단계가 높아질수록 자발적 단체성원이나 직장동료와 같은 공식 관계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인다.

3) 사회적 관계망과 접촉빈도

접촉빈도는 전화와 직접 만남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보았다. 가장 가까운 이웃 1만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종류에 따른 접촉 빈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전화 접촉의 경우, 양가부모, 기혼자녀와 그 배우자와는 삼분의 일 이상의 사람들이,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접촉을 한다고 응답하여, 근친과의 전화접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친족과의 전화 접촉에 있어서는 이웃과 가장 자주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삼분의 일 가 넘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 접촉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전체를 볼 때에도 거의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번씩 전화 접촉을 한다는 응답이 한달에 한두번 미만으로 한다는 응답보다 두배 이상 많음을 볼 때 도시인들은 전화라는 통신 수단을 통하여 서로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직접 만남은 전화의 경우에 비하여 접촉빈도가 훨씬 줄어든다. 양가부모 그리고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와의 만남은 한 달에 한두 번 내지 몇 달에 한두 번이 약 삼분의 일 이상인 반면, 거의 매일 내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약 오분의 일로 나타나 근친과의 직접 만남의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친족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이웃 및 공식관계와는 거의 매일 만난다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웃은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공적관계에는 직장동료 및 선후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보면, 전화 접촉은 친족과 비친족간에 유의한 차이없이 모두 비교적 자주 이루어지는 반면, 직접 접촉은 비친족과 더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친족 유대는 전화만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반면, 비친족과의 관계는 직접적 접촉에 의하여만 그 관계가 확인되고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화와 직접 만남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친척과의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나지만(Waite, 1992, 646; 中間美沙子, 1994, 9), 이를 구분한 최근의 국내연구들에 의하면 전화는 대체로 친척과 더 자주 이루어지거나(박수정, 1992, 33; 최덕신, 1993, 39), 직접만남은 비친족과의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수정, 1992, 33)고 하여 여기에서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4) 소 결

이상으로 기혼 도시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도시인의 사회적 관계망의 전체 크기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가까운 관계로는 여전히 친족을 들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비친족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친족과의 유대에 있어서는 원친보다는 근친지향적, 인척보다는 혈족 지향적이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친족관계를 더욱 가깝게 유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친족과의 관계는 줄어들고 비친족과의 관계는 중요시된다. 친족과 비친족 모두 주로 전화라는 통신 수단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직접적 만남은 친족보다는 비친족 사이에 보다 더 자주 행해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기혼 서울시민은 부모나 형제자매, 기혼자녀와 같은 근친관계를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범위가 좁아지고 있는 친척관계를 학연,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의 비친족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가족/친족 생활 의례

1) 가족/친족생활의례 관행과 태도의 변화

우리의 전통사회는 유교적 이념에 기반을 둔 가족 즉 관혼상제례의 규범이 가족 및 친족생활의 주요한 준거들이었다. 그리하여 생애 과정에 따른 의례를 중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혼례에 대하여 더욱 각별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의 의례에 대한 태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의례 일 순위가 혼례라는 조사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인간의 생애 마디인 통과의례를 출산의례에서부터 생일, 성인기 진입, 혼례, 상례, 제사의례의 순으로 조사하였다? <부록 3, 부록 4 참조>

(1) 출산의례

먼저 출산의례는 전통적인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산의례 중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산모의 미역국, 백일잔치 등이었다. 반면 백일기도나 외갓집 첫나들이에 붉은고추를 넣고가는 일, 삼신에게 빌기 등의 민간신앙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그 의미를 잃고 소멸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상적으로 혼례 시 궁합을 보거나 택일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과는 구별된다. 출산의례에서는 다른 의례에 비해 연령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주술적인 출산의례의 소멸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병원에서의 출산이 일찍이 보편화된 결과로 보이며, 미역국이나 백일잔치가 지속되는 것은 출산의례야말로 윗 세대 어른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생일의례

출산의례와는 달리 생일의례는 전통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변모하고 있었다. 생일의례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미역국을 먹는 것과 케이크를 준비하는 것이다. 반면 생일떡은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생일떡이 케이크로 대체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생일선

7) 가족/친족생활 의례실태는, 성인기진입 항목만 응답자 전체를 분석하였고 다른 모든 항목은 의례를 직접적으로 주관하거나 경험하는 기혼자들의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물도 6할 정도가 생일의례의 한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어, 점차 생일의례가 서구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서구적인 모습의 생일의례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3) 성인기의례

성인기의례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는 시점을 어느 사건을 기준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남자의 성인기는 '군대제대', 여자의 성인기는 '결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성인기는 개인의 발달과정보다는 '결혼'이나 '출산'과 같이 새로운 가족에 편입되는 사건을 기점으로 인식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분항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나타나, 성인기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십대 후반에 관례나 혼례를 올리고 어른이 되었던 전통사회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은 청년기의 기간은 현저하게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성인이 되는지 그 계기가 모호하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과도한 의존이나 책임감 결여와도 연관되므로 이른바 성인식으로 지칭되는 성인기의례의 정립이 사회적으로 실질히 요청된다.

(4) 혼례

혼인의례 중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 것(응답자의 결혼)은 폐백과 청첩장, 그리고 신혼여행, 피로연 등이었다. 함집이와 약혼식, 야외촬영, 답례품 등도 상당수 있었다. 혼인의례는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로 상품화된 의례의 보급 정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손승영, 1995). 결혼식 절차와 비용의 결정방법은 부모자녀가 서로 의논하여 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부모의 결정에 따른 경우도 상당히 높아, 여전히 결혼식이 자녀 개인의 의례라기보다는 집안과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집안의 의례임을 보여주고 있다.

(5) 상례

장례의례 역시 상품화된 의례가 상당부분 침투해 있었다. 어떤 의례를 가장 중요시하는지를 묻은 결

과, 가장 중요시하는 의례는 결혼식 다음으로 장례식, 회갑잔치, 기제사 등의 순이었다.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의례의 순서는 의례에 상업주의가 침투된 정도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의례부터 상업화가 진전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먼저 장례절차의 주도자는 상주와 가족 및 친족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장례업 전문가가 주도한 경우도 무시 못할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장례의 장소도 자택인 경우보다 병원영안실인 경우가 더 많아, 전통적인 자택에서의 장례모습이 현대의 도시사회에서는 유지되기 힘든 것임을 보여준다.

상주의 복장을 보면 남성의 상복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검은색 양복과 삼베완장으로 나타났다. 삼베상복과 굴건, 삼베리본, 요질, 지팡이, 행전 등의 전통적 상복사용은 30~40% 정도였다. 여성들의 경우는 흰색소복과 흰색머리 리본이 보다 보편적이었다. 지팡이와 요질 등의 전통상례복장을 사용한 경우는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복들도 병원이나 장의업체가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므로써, 상품화된 장례의례를 일반인들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묘지의 희망형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것은 가족묘지(선산)였고, 다음이 공원묘지였다. '화장 후 뿌리기'와 종교기관 묘지에 대한 희망도 적지 않았다. 반면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은 화장 후 뿌리는 것에 비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났다. 아직도 묘지에 대한 생각은 전통적인 봉분형의 매장형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제례

상례와 달리 제사의례의 경우는 상품화, 규격화된 양상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며 전통적인 형태가 현대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라, 혹은 종교에 따라 각 가정별로 적응하면서 지속되고 있었다. 제사의 실시 정도를 알아본 결과 제사는 아직도 보편적인 의례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중이 주체

가 되어 치러지는 제사인 묘사의 경우는 40% 정도가 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개별 가정에서 행해지는 기제사, 차례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지만 결코 적지않은 시행정도를 나타냈다. 또 제사를 실시형식별로 나눠서 그 행해지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소한 유교식 제사가 가장 다수에게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 유교식을 고수하는 경우도 21.4%에 이르러 유교적 형식의 제사를 지내는 비율은 62.6%에 이르렀다.

제사는 종교적인 측면을 지니는 의례이므로 각 종교별로 독특한 제사형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유교식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형식은 기독교식 추도식이고, 절제사는 11.8% 정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사는 보편적인 의례로 여전히 유교적 형식에 따라 치러지고 있지만, 종교적 영향에 의해 형식이 다소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상대적으로 천주교(임석수, 1989)와 원불교(박양순, 1996)는 유교식 제사를 수용하는 형태로 변모하였다.

제사의 구체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기제사에는 형제자매나 4촌이내의 친족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기제사 시간은 일정한 추세없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전날 해진뒤, 당일 밤 12시 이후, 혹은 당일 해진 뒤에 지내는 경우로 분산되어 나타났고 가족들의 편의에 따라 정하는 시간에 지내는 경우도 23.1%나 되었다.

제사복장은 양복이나 평상복을 단정하게 입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기는 제사용 제기를 따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68.6%에 이르렀고 제사음식의 경우는 '모든 음식'을 집에서 마련하거나 '대부분의 음식'을 집에서 마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신위나 지방의 경우, 전통의례 대로 한자로 쓰는 경우가 60.3%로 가장 많았고, 남자만 절을 하는 경우가 가장 다수를 차지했다. 즉 제사의 구체적인 형식을 볼 때 산업사회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시간, 복장, 모이는 사람범위 등)은 적응적인 변화를 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제사에서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 즉 제수마련이나 제기사용 등은 여전히 전통적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들이 없을 경우에 희망하는 제사방식을 보면, 양자를 입양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다는 의견은 극소수였다. 그리고 절, 성당과 같은 종교기관이 제사를 대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으며 딸을 통한 외손봉사를 희망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 제사풍속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서 가장 다수의 의견은 제사제도가 차츰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이었고, 그 다음은 종교기관이 대행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즉 과반수의 사람들이 제사가 자녀세대의 임무로 전과 같이 지속되는 것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아들이 없을 경우 제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사를 안 지내도록 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반수여서, 제사를 위해 아들을 입양해오던 유교적 규범에서 상당히 이탈된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는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자기 자신은 반드시 제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며, 사회전반적으로는 제사의례가 쇠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지금도 여전히 민족대이동을 이루는 설과 추석의 차례관행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일종의 행동과 의식의 불일치 즉 의식과 행동이 모순되는 지체의 한 예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속의례라는 것은 이성적인 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무의식차원의 집단행동의 표출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제사의례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제사에 참여하는 부계 친족관계망의 축소와는 연결되지만, 차례관행의 지배적인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제사 자체가 쇠퇴할 것이라고까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2) 소 결

농경사회에 뿌리를 둔 전통적인 가족/친족생활의례의 변화양상은 그 변화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요약된다. 민간신앙적 의례와 같이 산업사회 나름의 합리성에 의해 약화되거나 쇠퇴한 경우와, 생일떡 대신 케이크가 보편화되듯이 서구화되는 생활양식에 의해 전통성이 서구형태로 대체된 경우이다. 그리고 피로연, 폐백, 영안실 장례와 같이 전

통문화에 뿌리를 두어 강한 지속성을 갖고 전승 하되 일면 현대사회의 생활양식 변화나 상업주의의 영향을 받아 변형되어 지속되는 경우이다. 또한 설이나 추석 차례와 같이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변함없이 지속되는 경우와 신혼여행, 야외촬영 등과 같이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업화에 따라 전에 없던 항목이 새로이 출현하여 강화된 경우이다. 이어서 위에서 살펴 본 의례관행과 의례에 대한 태도에 대한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가정의례는 민간신앙적, 주술적 의례 이외에는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혼례나 제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례가 지속되는 것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오늘날의 물질적 수준이 향상된 데도 기인할 것이며 또한 아직 연면히 지속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의식에 연유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둘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는 의례의 상당부분에서 구체적인 형식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례장소가 영안실로 대체되는 것, 제사시간의 변화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의 정보화사회에는 의례의 또다른 부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빨라진 교통통신망은 시제와 같은 분증행사, 족보발간 등을 보다 용이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의례의 상업화경향은 의례의 많은 부분에 침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일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관심 의례인 혼인의례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통의례, 서구의례를 막론하고 각종 의례를 상품화하여 유포, 확산시키는 '자본'의 힘은 앞으로도 깊숙히 침투하여 의례를 지속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종교가 의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의례 자체의 소멸보다는 전통의례의 틀 안에서 종교적 교리에 배치되는 부분만이 변형되는 정도의 변화만을 가져왔다. 종교의 영향은 특히 장례와 관련된 묘제, 제사 등의 의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의례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는 친

족집단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부분을 종교기관들이 점차 대항하게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VI. 결 론

한국의 가족 및 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에 대한 규명을 하기 위한 이 연구는 도시와 농촌의 상이한 또는 유사한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차 연구로 계획되었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도시인의 가족과 친족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계량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농촌인의 가족과 친족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적, 질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계획되어 있다. 이 논문은 도시인의 가족 및 친족구조를 계량적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한 1차년도 연구 결과이다.

이 연구는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인의 가족 및 친족 구조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녀 7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관,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이혼, 재혼에 대한 태도, 사회적 관계망 구조, 가족 및 친족생활의례에 대한 태도였다. 이를 통하여 가족 및 친족구조가 과거의 전통적인 유형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변화하거나 해체되고 있는 양상을 파악하고, 변화과정에서 재구성된 가족 및 친족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에 대한 가치와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혼에 대한 태도의 전반적인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이지만 진보적인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두드러진 연령 차라는 점과 더불어 가치와 행동과의 괴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즉, 사회변화에 대한 조망 폭이 넓은 60대와 이미 변화된 사회에서 성장하여 변화를 체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20대간에 가족 및 친족관련 가치나 태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일관성 있게 드러나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60대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지니며 성역할분리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로 높는데 비해서 20대는 가장 진보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더 그러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20대 여성이 가족과 관련되는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우리 나라 20대 여성의 미혼율의 증가 및 이혼율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이미 관찰되고 있다(중앙일보, 1998년 5월 27일자).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에서 나타나는 성과 연령차이는 가정생활은 물론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세대간, 남녀간의 경험과 인식의 폭을 좁힐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 요청되며 바로 이러한 조정과 협상 과정을 어떻게 유도하는가가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 가족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세대별, 성별에 따르는 가족의식과 가족평등의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이 다양하게 연구되는 동시에 개별 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적인 성향으로의 변화와 연관지어 한가지 더 지적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행동의 변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변화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행동이 먼저 변화하고 문화·규범·태도·가치 등이 후에 변화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여기에서의 결과를 보면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남아선호사상에 대한 지지는 낮지만 아직까지 높은 남아출산율이나 이혼과 재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보이지만 구체적 상황이나 자녀와 연관된 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등을 고려한다면, 가치 영역이 오히려 행동변화에 비하여 앞서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가치는 평등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반영하여 응답하지만 막상 자신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에서는 아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행동의 변화까지는 불러오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가족 및 친족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이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가족 및 친족 구조의 변화가 해체라는 현상으로 확대되기보다는 변

화를 통한 범위의 축소 내지는 기능의 축소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 및 친족구조의 변화에 새로운 가치의식과 기능 및 구조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적극적인 구조의 재구성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현상은 가족 및 친족구조의 범위와 기능의 축소라는 소극적인 구조의 재구성이라고 하겠다.

물론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주의가치와 사회적 관계망의 측면은 전통적인 부계직계가족의식으로부터 상당히 분리되고 있어서 보수성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남녀의 성역할분리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고 이혼을 수용하기는 하나 이혼에 대한 제한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 등은 가족의 안정성 및 자녀의 성장과 발달이라는 측면이 개인의 행복보다는 우선시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이혼 및 재혼에 대한 태도에서 부부중심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부부간의 애정이 이혼, 재혼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향은 부부관계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본 부분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하는 방향으로서 부계직계가족의식이 약화되면서 부부중심의식으로 변화하되 보수적인 가족의식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의 현저한 특징은 근친 지향적 경향과 강력한 부모자녀 유대관계의 지속성이다. 가족주의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는 낮아지고 있으나,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현상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친지향적 경향은 제사의례가 점차로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사로 축소되고 있으며, 부부관계에 양가부모의 영향력을 중요시하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 유대관계는 자녀를 보살보다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세대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넷째, 가족 및 친족의례는 서구화, 산업화, 자본주의화된 사회에 적응하면서 변모되어 그 해체와 재구성의 양상은 앞으로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사회에서는 획일화된 의례 형식에서 벗어나 가족 및 친족의례의 상업주의 의존도가 더

욱 높아질 것이며 의례는 각 가정 혹은 개인에 따라 그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신념은 더욱 강화되어 설과 추석등 전통적인 민속문화에 근거한 의례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제화, 정보화가 가속화되는 미래사회에는 국적 불명의 의례 역시 상업주의의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부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차례와 제사의례는 여전히 지속되어 강력한 부계 위주의 특성은 약화될 것이나 소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사의례는 부모 위주로 그 범위가 축소되면서 강화되어 한국인의 혈연의식 지속의 모태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근친가족 중심으로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여 부모자녀간 유대관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모든 측면이 의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 현대 도시인의 생활에서 가족 중심성 그 자체가 소멸하여 가족 및 친족 구조가 전면적으로 해체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사회변화와 가치의식의 변화,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 및 친족생활에 대한 의식과 태도 그리고 관계적 속성이 변화하여 소극적인 가족과 친족 구조의 재구성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과거 부자중심의 부계 직계가족으로부터 양가의 부모자녀 관계를 포용하는 부부중심가족이 가족 및 친족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부계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부계 가족 및 친족구조의 축소라고도 보겠으나, 양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족의 규모가 열려지고 확대된 보다 포용적인 가족의 변화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도시인의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성에 대한 현상 파악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계량적 분석 결과만으로는 미진한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현상은 앞으로 질적 접근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며, 농촌인의 가족 및 친족 구조를 파악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이성과 유사성을 밝혀서 우리 나라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성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강성희(1996). 도시 기혼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 권태환 외 13인(1990). 전환기 한국의 사회문제. 서울: 민음사.
- 3) 권태환·김두섭(1994).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4) 박미령(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박수정(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박양순(1996). 원불교의 재와 제례.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 7) 박인택(1979). 한국가정생활의 가치관에 관한 일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손승영(1985). 가정의례. 한국 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 9) 심윤중·유홍준·박승희(1995). 산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 10) 오승환(1990).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옥선화(1975).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전통성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4), 141-156
- 12)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옥선화(1996). 가족생활의 변화. 이기영·이은영·옥선화·백희영·홍형욱. 광복후 가정생활의 변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39.
- 14)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연구 - 현대인의 결혼관 조사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부설 인문 과학연구소논문집 2, 127-150
- 15) 이광자(1989).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6)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 가정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17) 이동원(1984). 도시주부의 관계망에 대한 조사-시가 및 친가와외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논총, 44, 7-36.
- 18)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 임석수(1989). 평신도 집전시의 임종 및 장례의식. 광주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임춘희(1994). 재혼가족연구의 시각과 연구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지, 32(2), 93-108.
- 21) 장현섭(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사연구회편,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9, 42-80. 서울: 문학과 지성사.
- 22) 최규련(1988). 한국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3) 최덕신(1993). 중년기 주부의 사회관계망과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최재석(197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25) 통계청(1996). 제36회 서울통계연보.
- 26)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6 여성통계연보.
- 27) 한국여성개발원(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서울과 후쿠오카현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28) 홍승직(1971).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 29) 中間美沙子 外(1994). 中國,四國 地域の 社會的 ネットワ-ウの 現状と課題. 日本家政學會誌, 45(1), 13-18.
- 30) Fawcett, James, Sonia Albores & Fred Arnold(1972). "The value of children among ethnic groups in Hawaii: exploratory measurements" In James Fawcett(ed.), *The Satisfactions and Costs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234-259.
- 31) Fischer, Lucy Rose(1983). Married men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5(3), 393-402
- 32) Marsden, Peter V.(1987). Core discussion network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122-141.
- 33) Moore, Gwen(1990). Structural determinants of men's and women's personal net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726-735
- 34) O'Connor, Pat(1990). Adult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 Uniquely and universally close relationship?. *The Sociological Review*, 38, 293-323.
- 35) Waite, Linda J., Scott C. Harrison(1992). Keeping in touch: How women in mid-life allocate social contacts among kith and kin. *Social Forces*, 70, 637-654.

부 록

〈부록 1〉 부부관계의 변화상

	실 태	연령차	성차
10년전과 비교한 변화정도	평균 3.22점 (4점 척도)	F = 3.99**	ns
구체적 변화실태	부인영향력증가(75.8%) 부인의견 존중(70.8%) 남편가사노동증가(54.3%) 부부공유시간 증가(40.9%) 남편 자녀양육증가(36.6%) 부부대화시간 증가(35.9%) 부인 부양자역할 증가(29.1%)	남편 가사노동증가** 남편의 자녀양육증가* 부부 공유시간증가**	ns
부부권력	평균 2.38 (5점 척도)	F = 8.04***	ns
가장 중요한 역할	남편역할: 생계책임자(34.9%) 집안통솔(28.9%) 등	***	ns
	부인역할: 어머니역할(37.7%) 집안살림(25.5%) 등	***	*

*p<.05, **p<.01, ***p<.001

〈부록 2〉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상

	실 태	연령차	성차
10년전과 비교한 변화의 정도	평균 3.16점(4점 척도)	$F=8.23^{***}$	ns
구체적 변화실태	부모가 자녀존중(61.7%) 부모와 자녀가 가까워짐(52.0) 부모자녀간 대화증가(43.3) 자녀가 부모존중(43.7)	부모자녀간 대화 증가**, 자녀가 부모존중***	부모와 자녀가 가까워짐**
부모자녀권력	평균 2.27 (5점 척도)	ns	ns

* $p<.05$, ** $p<.01$, *** $p<.001$

〈부록 3〉 통과의례 및 세시의례의 실태

의례의 종류	실시 정도 (%)	연령차(χ^2)
출산의례	미역국(91.0) 백일잔치(73.5) 돌잡이(46.9) 삼절인금기(29.8) 기타 민간신앙적 의례는 소수	백일잔치*
생일의례	미역국(86.0) 케이크(71.0) 선불(59.1) 생일떡(26.3) 외식(22.5)	외식**, 케이크*, 선불***, 생일떡*
성인기의례 (어른되는 시점)	남자: 군대제대(32.4) 만20세(17.5) 결혼(15.8) 여자: 결혼(25.0) 만20세(21.5) 대학졸업연령(16.7) 고졸연령(16.3)	남자의 성인기시점** 여자의 성인기시점***
결혼식의례	폐백 (90.2) 청첩장(87.6) 신혼여행(81.1) 피로연(74.6) 함짬이(55.7) 약혼식(36.2) 야외촬영(35.4) 등 주도자 : 상주(49.3) 가족/친족(33.2) 장래업자(12.4)	청첩장***, 야외촬영***, 피로연***, 신혼여행***, 폐백* ns(집안행사)
장례의례	장소 : 자택(47.7) 병원영양실(50.0) 상주복장: 남성-검은색양복(64.1) 삼배완장(60.0) 여성-흰소복(87.1) 흰리본(62.6) 등.	
제사의례	실시정도 : 묘사(40.9) 차례(84.0) 기제(80.9) 형 식 : 간소한 유교식(41.2) 전통유교식(21.4) 기독교추도식(16.7)	ns(집안행사)
문중행사참여	집안계(44.4) 묘사(40.6) 종친회(31.6) 족보발간(23.9) 참가안함(26.8)	참가안함**, 종친회*

* $p<.05$, ** $p<.01$, *** $p<.001$

〈부록 4〉 의례에 대한 태도

의례에 대한 태도	응답 분포 (%)	연령차(χ^2)	성차(χ^2)
중요시하는 의례	1순위: 결혼식(69.9) 등 2순위: 상례식(32.8), 회갑(23.3) 등	1순위 지적된것: 70.80***	1순위 지적된것: ns
희망묘제	1순위: 가족묘지(선산)(54.3) 화장 후 뿌리기(44.1) 2순위: 공원묘지(27.7) 화장 후 뿌리기(26.1)	ns	ns
부자일 경우 희망 제사방식	제사 안 지내도록 함(54.7), 전, 성당 등에서 지내도록 함(23.3), 의손봉사 하도록 함(18.2)	34.70*	24.81***
제사제도 전망	차츰 사라질 것(36.2), 종교기관 대행(21.1) 장남제사계속(19.3)	40.28*	27.49***

* $p<.05$, ** $p<.01$, *** $p<.001$